

## 흑인아이 '피터' 에게 쏟은 유대인 아저씨의 지극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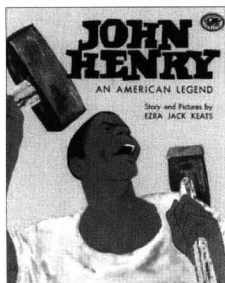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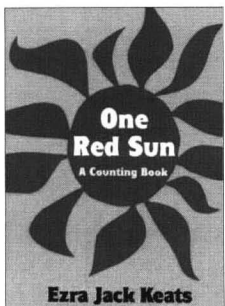
미국 영화계에는 흑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를 만드는 백인 감독이 있습니다. '마크 레빈' 이란 인물이지요. 그가 <슬램>처럼 흑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집안 분위기 때문입니다. 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집안 어른들을 보고 자란 소년 마크 레빈은 자연스럽게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부당하다는 걸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마크 레빈처럼 백인이면서 흑인 어린이가 주인공인 그림책을 그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삶의 비상구 飛上口 찾은  
브루클린의 빈민가 소년

미국작가 에즈라 잭 키츠 Ezra Jack Keats, 그가 흑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게 된 이유도 어린 시절 성장환경 때문입니다. 그는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유색인종들이 모여 사는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인은 아니었지만 반유대적 분위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 에즈라 카츠 Jacob Ezra Katz에서 에즈라 잭 키츠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모멸감을 느껴야 했던 경험이 흑인들과의 동질감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릴 적부터 유색인종과 이웃해 살아온 까닭에 그의 그림책에 자주 등장하는 '피터' 같은 흑인 친구가 그에겐 결코 낯설지 않았습다.

1983년에 사망했으니 올해는 에즈라 잭 키츠가 세상을 떠난 지 21년째 되는 해입니다. 1916년에 태어난 그는 유색인종들이 주로 모여 사는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 가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유대계 폴란드인이었고 집안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잭 키츠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서 친구들과 지내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그덕에 혼자서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갖게 되었지요.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이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각종 미술대회에 나가 상을 휩쓸면서 남다른 그림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아버지는 집안형편상 아들이 기술직 근로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환경은 잭 키츠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935년 1월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그는 대학 입학 문턱에서 또 한번 크게 좌절하지요. 이제 아버지의 죽음으로 남은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훗날 그가 그림책 작가로 성공하는데 큰 계기를 마련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잭 키츠는 아버지의 지갑에서 그의 수상소식을 다룬 신문기사 쪽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집안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선뜻 아들을 후원하진 못했지만 잭 키츠의 아버지 역시 아들의 재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잭 키츠는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못한 채 주경야독으로 그림을 배운 작가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의 그림책 작업만큼 그의 삶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충분히 전해주지요. 어린 시절 어려웠던 나날을 보상받듯 잭 키츠는 1963년과 1970년에 최고 그림책 작가만이 받을 수 있다는 칼데콧 상을 수상하며 그림책 작가로 성공합니다.





잭 키츠는 더 이상 새로운 책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가 내놓은 약 85권의 그림책은 여전히 전 세계 아이들을 향해 미소짓고 있지요. 또한 뉴욕 공립도서관과 에즈라 잭 키츠 재단, 유니세프에서 잭 키츠를 기리는 의미로 매년 신인 작가들에게 '에즈라 잭 키츠 상'을 준다고 하니 우리에게 제2의 에즈라 잭 키츠가 탄생하는 걸 지켜보는 즐거움도 남아 있습니다.

생전에 에즈라 잭 키츠는 그림책을 만드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림책을 만드는 목적은 실재에서 환상까지 나의 모든 경험을 아이들과 나누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 아이가 누구든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느끼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 아이들은 물론이요, 어른들까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친구들이 등장하는 에즈라 잭 키츠의 그림책 세계에서 나 자신을 만나봅시다.

콜라주 안에

동심童心の 장난기가 가득

에즈라 잭 키츠 그림책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서민적인 배경 아래 생활하는 평범한 아이의 일상에 주목했다는 것, 둘째 흑인아이 피터를 주요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는 것, 셋째 콜라주, 마블링 등 독특한 그림기법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첫 책이었던 《우리개를 찾아주세요》를 비롯해 칼데콧 상을 수상한 《눈 오는 날》 등 그의 주요작품 중국 내에 번역된 그림책 몇 권을 펼쳐봅시다. ✎

김정연 기자



《우리개를 찾아주세요》

에즈라 잭 키츠 글·그림 | 김경태 옮김 | 베틀북 | 40쪽 | 값 7,000원

1960년에 출간된 에즈라 잭 키츠의 첫 책입니다. 검은 연필선과 붉은 색만을 사용한 간결한 그림이 인상적이지요. 이틀 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뉴욕으로 이사 온 후아니토는 사랑하는 개를 잃어버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뉴욕 거리를 혼자 헤맸다. 울음을 참고 거리를 돌아다녀 보지만 사랑하는 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때 후아니토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 것은 거리에서 만난 친구들. 차이나타운의 중국인 남매와 파크 애비뉴에 사는 쌍둥이 자매들 등은 말도 통하지 않으면서 후아니토와 동행하죠. 아이들이 국적, 언어, 인종을 뛰어 넘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눈 오는 날》

에즈라 잭 키츠 글·그림 | 김소희 옮김 | 비룡소 | 32쪽 | 값 6,000원

1963년에 에즈라 잭 키츠에게 칼데콧 상을 안겨준 책입니다. 겨울날 창 밖에 하얀 눈이 내린 것을 보며 다양한 놀이를 해보는 피터가 등장하지요. 에즈라 잭 키츠는 이 책을 시작으로 '피터'라는 주인공을 그림책 속에 등장시킵니다. 잭 키츠는 흑인소년 피터가 눈사람을 만들고 눈 위에 발자국을 찍어보고 나무막대로 눈 위에 줄도 그어보고, 자신의 몸까지 찍어보면서 겨울날을 즐기는 소년의 모습과 심리가 재미있는 그림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눈발에서 빨간색 옷을 입고 노는 피터의 모습이 인상적이군요. 오려 붙이기, 물감 뿌리기 등 실험적으로 완성된 그림들이 소개됩니다.



《피터의 의자》

에즈라 잭 키츠 글·그림 | 이진영 옮김 | 시공주니어 | 34쪽 | 값 7,000원

피터에게 동생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동생이 있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거봐요. 자신이 쓰던 의자를 동생에게 주지 않으려고 피터는 가출까지 하게 됩니다. 짐까지 챙겨 나간 곳은 고작 자기 집 앞. 그런 피터가 마음을 고쳐먹게 된 것은 자신의 의자가 커버린 자신의 몸에 맞는 의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입니다. 이제 피터는 자신이 더 이상 아기가 아님을, 동생 역시도 마냥 시기할 대상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집을 나갈 때 공범인 강아지에게 줄 비스킷과 자신이 먹을 과자, 장난감, 어릴 적 사진 등을 갖고 나간 피터의 마음이 “나에게도 관심을 보여달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피터의 편지》

에즈라 잭 키츠 글·그림 | 이진수 옮김 | 비룡소 | 50쪽 | 값 6,500원

좋아하는 여자친구 에이미에게 생일초대 편지를 쓰는 피터. 비가 내리지만 피터는 신이 나서 편지를 부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바람에 편지가 날아갑니다. 피터는 편지를 잡으려다가 길에 나온 에이미와 부딪치지요. 이 책은 강렬한 색채를 잘 사용하는 에즈라 잭 키츠의 대담한 색채감각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좋아하는 이성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픈 아이의 심정을 잘 그려내고 있지요. 피터는 유난히 훌쩍 자란 것 같습니다. 양초가 일곱 개인 걸 보니 벌써 일곱 살이 된 거군요.